

KIA

정책연구
2018-13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세음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부패가 기업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4
제1절 부패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4
제2절 부패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9
제3절 소 결	15
제3장 업종별 부패인식 조사 결과	19
제1절 조사 방법	19
제2절 조사 결과	22
제3절 소 결	30
제4장 부패가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 ...	32
제1절 이론적 가설 및 분석 방법	32
제2절 분석 결과	37
1. 기초통계	37
2.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39
3.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	49
제3절 부패수준 개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60
제4절 소 결	64

제5장 결 론	6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69
제2절 정책 시사점	75
제3절 맺음말	77
참고문헌	79
[부록]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설문지	82

표 목 차

<표 3- 1> 전화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20
<표 3- 2> 업종별 부패인식도(5단계 척도) 평균: 응답자 전체 (n=300)	23
<표 3- 3> 업종별 부패인식도(5단계 척도) 평균: 응답자 활동 분야별	24
<표 3- 4> 업종별 부패인식도(5단계 척도) 평균: 응답자 연령대별	26
<표 3- 5> 업종별 부패인식도(5단계 척도) 평균: 응답자 성별	28
<표 3- 6> 업종별 부패인식도 부정 및 긍정 응답 비율: 응답자 전체(n=300)	29
<표 4- 1> 표준산업분류의 부패인식도 조사 업종 구분 변환	35
<표 4- 2> 분석 데이터 기초통계	37
<표 4- 3> 업종별 부패수준과 전체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40
<표 4- 4> 업종별 부패수준과 정규직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41
<표 4- 5> 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과 전체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43
<표 4- 6> 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과 정규직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44
<표 4- 7> 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과 전체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45
<표 4- 8> 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과 정규직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46
<표 4- 9> 업종별 부패수준과 전체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2013년 및 2015년 자료)	48
<표 4-10> 업종별 부패수준과 정규직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2013년 및 2015년 자료)	49

<표 4-11> 업종별 부패수준과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 (임의효과모형)	50
<표 4-12> 업종별 부패수준과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 (임의효과모형)	51
<표 4-13> 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과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임의효과모형)	54
<표 4-14> 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과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임의효과모형)	55
<표 4-15> 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과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임의효과모형)	56
<표 4-16> 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과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임의효과모형)	57
<표 4-17> 업종별 부패수준과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 (임의효과모형, 2013년 및 2015년 자료)	58
<표 4-18> 업종별 부패수준과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 (임의효과모형, 2013년 및 2015년 자료)	59
<표 4-19> 업종별 전체 및 정규직 고용인원 합계(2015년)	61
<표 4-20> 부패수준 개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전체 고용인원)	62
<표 4-21> 부패수준 개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정규직 고용인원)	63

요 약

본 연구는 부패가 노동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패의 범위로서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정관계 권력층과 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부패가 기업수준에서 고용의 양과 질, 인적자원 투자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고용성과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적 팩트를 발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경제 내에 만연한 부패는 해당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장기 경제성장 및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더불어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연줄에 따른 자원배분이 일어나는 부패 양상으로 인해 개발도상국 경제 전체에 효율성 상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더불어 이러한 부패에 의한 자원배분 효율성 상실이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 않음을 선행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패가 만연할 때 부패한 정치인 혹은 관료와의 연결고리를 가진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주가 상승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구제금융 수혜 가능성 상승, 국내 자금 조달 수월성 제고, 공공구매 계약 증가, 이익률 및 매출액 상승 등의 측면에서 해당 기업의 성과가 부패 연결고리 활용을 통해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인 및 관료와 부패관계를 형성한 개별 기업은 대체적으로 상당한 사적 이익을 향유하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패의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즉 부패는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의 괴리를 야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 본 연구의 정량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를 전화설문 방식으로 공무원 및 시민단체,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련 학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때 부패의 범위로서 기업 내부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보다는 정관계 권력층과 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은 건설, 제약/바이오, 유통, 운송, 통신/미디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패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은 생활소비재, 소프트웨어/인터넷, 음식료/담배, 화학 등이었다.

이러한 전체 응답자 대상 설문 결과는, 응답자의 활동 영역, 연령대 및 성별 등으로 나누어 세부 집단별로 분석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정량분석에서는 유효표본 전체의 응답 내역을 활용할 것이다.

더불어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적 및 긍정적 응답의 비율을 활용하여 각 업종을 평가한 결과 역시 5점 척도 평균을 활용하여 산정한 업종별 부패인식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수행될 주된 정량분석에서 응답자 전체의 업종별 5점 척도 평균 부패인식도를 활용할 것이다. 다만 업종별 부정 및 긍정 응답 비율을 보조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일종의 강건성 검증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 수행된, 업종별 부패수준이 해당 업종 내 기업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

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장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동일 업종 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법적 지대추구행위가 늘면서 그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릴 경우 개별 기업 수준에서 시장점유율 등의 성과가 개선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즉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서는 일종의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별 기업 수준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가 저해된다.

즉 4장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적 가설을 요약하면,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불법적 지대추구에 드는 비용이 커지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더불어 현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업에 대해 시간 불변의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물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까지 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생성 편의가 상당 부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장의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자료를 앞 장에서 소개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와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에 포함된 두 가지 자료, 즉 3~6차년도 균형패널 추가자료 중 본사 데이터와 NICE 재무정보 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핵심 종속변수는 고용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각 기

업의 연도별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인원을, 인적자원 투자 관련 변수로는 연도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총액을 사용하였다. 핵심 설명변수는 각 기업의 소속 업종 부패인식도로서,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각 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산총계 등을 활용하였고, 일부 모형에서는 각 기업이 속한 업종의 자본집약도를 통제하기 위해 중화학공업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전체 고용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형 분석 결과,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1% 개선되면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수준이 낮은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고용의 양을 늘릴 여력이 유의미하게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여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기본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1% 개선될 때 해당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패수준 1% 개선이 전체 고용인원 1.05%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정규직 고용인원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업종 단위 부패수준 개선이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인원 중 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형태의 고용의 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 업종별 부패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와 관련된 핵심 설명변수를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여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더라도 질적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의 2013년

및 2015년 2개 연도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아지나 핵심 추정계수 값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 단위 부패수준이 변화할 때,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수행하는 현 종사자 대상 인적자원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연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이 낮아질수록 해당 업종 내 기업의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이 줄어드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고용인원 및 재무현황 관련 통제변수를 통제할 때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매우 강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개선될수록 해당 기업이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이다. 기본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부패인식도 1% 개선이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을 2.81%, 복리후생비 총액은 1.8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 기업 관점에서 새로운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기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여력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첫 번째 대안에 집중하면서 두 번째 대안에 대한 투자는 더 적게 하는 경향을 보임을 뜻한다.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은 해당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위험과 직결된다. 외부 위험요인이 적은 상황에서 기업은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보다는 신규 인력 충원과 같은 좀 더 과감한 형태의 투자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기업의 투자 여력이 동일한 상황에서 경영상 위험도가 달라지면 두 가지 유형의 투자 사이에 대체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만약 위험도 변화에 따른 대체에 의해 두 번째 유형의 투자 감소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처한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질 때 첫 번째 유형의 투자는 늘고 두 번

채 유형은 줄어드는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4장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론적 경로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및 민간부문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해 업종별 부패 수준이 개선되어 현재 인식된 부패 정도가 가장 낮은 업종 수준에 좀 더 근접하게 될 경우에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타나게 될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를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이때 예측을 위해 채택한 가정은 각 업종별 부패인식도와 부패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의 부패인식도 간 차이가 민간부문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 파급효과 예측을 위해 근거로 삼은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는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1% 개선될 때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1.05%, 정규직 고용인원은 1.15%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대상이 된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 내 291개 기업의 2015년도 전체 고용인원은 295,815명인데, 위에 제시된 형태의 업종별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이 311,3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이들 기업에 대해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이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291개 기업의 2015년도 전체 정규직 고용인원은 257,566명인데,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271,9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패수준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양 증대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표되는 고용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석 대상 291개 기업의 전체 및 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된 2015년 정규직 비율은 87.1%이다. 만약 위에 제시된 형태의 업종별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인원이 위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증가한다면, 이들 분석 대상 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87.3%로 0.2%p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의 효과를 특별히 과대평가하는 방식의 가정을 취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에 일정 수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과급효과 예측을 위해 택한 가정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시된 결과는 반부패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업종별 부패수준 격차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데 초점을 두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내에 만연한 부패는 해당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장기 경제성장 및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패가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보더라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부패한 정치인 혹은 관료와의 연결고리를 가진 특정 기업의 성과는 주가 상승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구제금융 수혜 가능성 상승, 국내 자금 조달 수월성 제고, 공공구매 계약 증가, 이익률 및 매출액 상승 등의 측면에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듯,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그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릴 경우 개별 기업 수준에서 시장점유율 등이 개선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할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해당

경제의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둘째, 이처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민간의 자발적 개선 노력과 어우러질 때 노동시장을 포함한 경제 내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게 기업의 현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복리후생 등 인적자원 투자는 오히려 감소시킬 가능성이 본 연구 결과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문헌연구 및 정량분석 결과 부패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전반적으로 폭넓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적자원 투자와 관련된 일부 부정적 가능성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시행 및 민간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외부로부터의 경영상 위험이 여러 측면에서 커지다 보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 충원과 같은 과감한 투자보다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와 같은 보수적인 투자에 주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반부패 정책 시행 등을 통해 부패수준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날 것이나, 경영상 위험 감소에 따른 대체로 인해 나타나는 인적자원 투자 감소를 상쇄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기존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상시 불필요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이긴 하나,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활동 영역, 연령대 및 성별 등 세부 집단별로 드러나는 업종별 부패인식도에 있어 서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은 그렇지 않은 업종에 비해 실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패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싸잡아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본 연구의 근본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다. 부패인식도가 높은 업종의 기업들이 타 업종에 비해 권력층으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유무형의 압력에 더 많이 시달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노력 없이 그때그때 드러나는 구체적인 부패 사례를 지적하며 연루된 이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부패 사례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패가 노동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 결과, 부패가 기업수준에서 고용의 양과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팩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부패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이론적 예측과 상반되게 도출되기도 하였다.

부패의 경제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 그리고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민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패수준이 낮아질 때 노동시장 내 고용의 양과 질이 일정 수준 개선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 있는 부패 감소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 장기 경제성장 촉진 및 경제적 불평등 축소 등과 함께 부패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책이 그러하듯 반부패 정책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야기할 가능성이 본 연구의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부패수준 개선이 기업의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등 인적자원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킬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론적 예측과 상반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위험이 높을 때 투자의 두 가지

유형 간에 발생하는 대체에 주목한 바 있다. 즉 기업이 평소에 직면한 경영상 위험이 높은 경우, 부패수준이 개선될 때 투자에 대한 여력이 늘더라도 위험 하락에 따른 투자 유형 간 대체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인적자원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반부패 정책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일부 반감시키게 된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정관계 권력층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현재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노동시장에서 국민들이 그 결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부패 사례 적발 및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부패 유발 요인 근절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민간의 자발적 개선 노력과 어우러져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 불필요한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는 정책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역시 부단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제 1 장 서 론

부패(corruption)는 그 행위를 저지른 주체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실제 실천 여부와는 별도로, 어떤 정권하에서든 정부는 반부패 개혁의 기치를 드높여 왔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설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2번이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CPI) 국가별 순위 50위권 밖에서 2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지만, 해외 주요 선행연구(Krueger 1974, Mauro 1995, OECD 2015)에 따르면 부패 정도가 높을 경우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물적 자본 투자 위축으로 장기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등 각종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생산적인 정부지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불평등 심화마저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초점을 맞추었던 문제의식에서 한 발 더

1) 국제투명성기구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51위에 위치해 있다.(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7)

나아가, 부패가 노동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패의 범위로써 기업 내부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보다는,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정관계 권력층과 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부패가 기업수준에서 고용의 양과 질, 인적자원 투자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고용 성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적 팩트를 발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일종의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리지 않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²⁾

본 연구의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부패가 기업의 재무성과 및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상세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기존 선행연구와 어떤 측면에서 맞닿아 있고,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부패가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의 경우 설문조사로 수집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 산정에 활용하는 여러 부패인식도 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양한 집단(공무원, 외국인, 전문가, 기업인, 일반 국민 등)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를 국내 업종별 부패인식지수 산정에 응용하는 방식의 전화설문 조사로 실시할 것이다. 해당 조사 결과 관련 기초통계를 요

2)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력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 혹은 기업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 과정 및 결과 제시에 있어, 특정 개별 기업이나 기업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확실히 차단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정량분석 및 부패인식지수 산정 결과 등을 제시할 때 철저한 익명 처리를 통해 개별 기업 및 기업 집단 명칭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미리 밝힌다.

약하여 정리한 내용을 3장에서 우선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앞서 소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 간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 변수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업종별 기업에 대한 분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수준 미시 데이터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고용의 양과 질,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지출 등 인적자원 투자 변수가 해당 업종의 부패인식 정도와 갖는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핵심 가설은,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그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릴 경우 개별 기업 수준에서 시장점유율 등이 개선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가 4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더불어 역시 4장에서 부패가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업종별 부패수준이 개선될 때 나타날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위에 제시된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부패수준이 개선되어 현재 인식된 부패 정도가 가장 낮은 업종수준에 좀 더 근접할 경우 노동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지 추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위의 분석 방법론들을 활용하여 도출된 실증적 팩트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용의 측면에서 기대되는 영향을 요약하고, 정부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 2 장

부패가 기업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제1절 부패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부패가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장기 경제성장,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Krueger(1974)는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에 의해 발생하는 경쟁적인 지대추구(rent seeking)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rueger(1974)가 다양한 지대추구행위 중 하나의 예로 수입물량이 정부에 의해 제한될 때 수입허가권(import license)을 놓고 민간부문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지대추구행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만약 동일한 수입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발생했을 후생손실에 더해 지대추구에 따른 후생손실이 추가되어 전체 사회후생 손실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ueger(1974)는 더불어 만약 시장경제하에서 소득분배 결과가 일부 계층의 정부 관료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을 포함한 성공적인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결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경우,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게 됨으로써 더 많은 정부 개입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지대추구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일종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Mauro(1995)는 국제비교를 통해 각국의 부패수준이 해당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Mauro(1995)는 현재 이코노미스트지 정보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과 통합된 국제 비즈니스사(Business International)가 작성한 세계 각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총 67개 국가에 대해 국가 간 회귀분석(cross-country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Mauro(1995)의 분석 결과, 부패수준이 높아질 때 해당 국가의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투자가 위축되어 장기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Mauro(1998)는 후속 연구로서 각국의 부패수준이 해당 국가 정부지출의 항목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나라일수록 정부지출에서 교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정부지출 항목에 비해 교육부문이 부패한 관료가 사익을 편취할 기회를 덜 제공하기 때문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Khwaja and Mian(2005)은 파키스탄 은행들의 기업 대상 대출 관련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정치인 이사를 보유한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는 데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사회 내에 정치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대출액이 45% 더 높아지는 반면, 이들 기업의 경우 부도율 역시 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hwaja and Mian(2005)은 파키스탄의 경우 이와 같은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이 정부 소유 은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혜 대출에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정치인 이사 본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소속 정당이 승리하는 경우, 정부 소유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상의 특혜가 더 커짐도 보여준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부도 위험은 높지만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대출(social lending)이 아닌 파키스탄 내에 만연한 부패 양상을 반영하는 근거로 규정한다. 아울러 사회적 대출에 주력하는 정부 소유 은행의 경우 오히려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에 특혜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Khawaja and Mian(2005)은 이러한 정치적 연줄에 따른 파키스탄 내 금융부문의 부패 양상이 파키스탄 경제 전체에 상당한 효율성 상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연줄을 통해 특혜 대출을 받은 파키스탄 기업들의 부도 액수를 납세자들이 떠안아야 할 사회적 부담으로 간주할 때 해당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파키스탄의 연간 GDP의 0.15~0.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로 발생하는 투자 왜곡 현상으로 말미암은 효율성 상실이 파키스탄 연간 GDP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2)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여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OECD 국가들에 대해 각국의 부패수준이 1인당 명목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반부패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OECD 평균에 도달할 경우 우리나라의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이 0.65%p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Cingano and Pinotti(2013)는 이탈리아 제조업 부문의 기업수준 데이터와 지역 정치인 관련 행정 자료를 결합하여, 정치적 연줄이 연줄을 가진 기업에 주는 혜택과 사회적으로 초래하는 비용을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이탈리아 특유의 제도적 특성, 즉 대부분의 지역 정치인들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것을 반영하여 기업 내에 지역 정부에 임명된 정치인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 해당 기업이 정치적 연줄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과 이윤이 거의 6%가량 높는데, 이러한 양상은 지역 정부 다수당에 속한 정치인을 고용한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성과 향상은 해외 수출이 아닌 내수부문에서만 발생하였다. Cingano and Pinotti(2013)는 이러한 정치적 연줄에 따른 기업 간 자원 배분 왜곡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20%가량 감소하는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OECD(2015)는 특히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4개의 주요 산업

(자원채굴, 유틸리티 및 인프라스트럭처, 보건, 교육) 부문별로 부패가 어떠한 경제적 악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 그로부터 거시적인 함의를 도출하였다. 산업별 분석 결과, 부패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진입장벽 강화, 생산 품목의 가격 상승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OECD는 부패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생산적인 정부지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빈곤층이 피해를 입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하면서, OECD 회원국들이 부패 일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kcigit, Baslandze and Lotti(2017)는 이탈리아의 기업 및 근로자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정치적 연줄이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및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3년부터 2014년에 걸친 이탈리아의 기업수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자료, 근로자수준 사회보장 자료, 특허 자료, 지역 정치인 명부 및 지방선거 결과 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특정 산업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타 기업에 비해 지역 정치인을 사내에 더 많이 고용하여 정치적 연줄 활용도가 더 높았고, 반면에 기술혁신 노력은 더 적게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 단위에서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정치적 연줄 의존도가 높을수록 해당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기업 성장은 낮으며, 생산성 역시 저하된다. Akcigit et al.(2017)은 특정 기업의 정치적 연줄이 강할수록 해당 기업의 생존율과 고용 및 매출액 증가율은 높아지나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동태적 양상을 감안할 때, 저자들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정치적 연줄을 활용한 정부 규제 회피 노력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고 기업 자체의 기술혁신 노력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Schoenherr(2018)는 자원배분이 정치적 연줄(political connection)을 통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효율성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특유의 제도적 특성, 즉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의 공기

업 사장을 해임하고 자신의 개인 네트워크에 속한 이들을 공기업 사장에 임명하는 관행, 그리고 이들 공기업 사장이 공공구매 계약(public procurement contract)을 통해 민간 기업에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착안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의 개인 네트워크 안에서 지명된 공기업 사장들 역시 자신들의 개인 네트워크에 속한 CEO가 재직 중인 민간 기업에 공공구매 계약을 몰아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정치적 연줄을 통한 자원배분은 계약 수행상의 문제 및 비용 증가 등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 대통령의 개인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특정 학교 및 기업 출신 인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특정 대통령 당선 직전 및 직후를 비교할 때 이들 인맥에 해당하는 CEO가 재직 중인 민간 기업의 공공구매 계약 액수가 기업자산 대비 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간 기업은 반드시 대통령 본인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새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의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경우 공공구매 계약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Schoenherr(2018)의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정치적 연줄을 통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자원배분은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과 연줄이 없는 기업이 각각 체결한 계약을 비교한 결과, 연줄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공사 지연 등 문제점이 10%p가량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사 비용 증가 역시 연줄이 있는 계약에서 5%p가량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연줄이 없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연줄을 가진 기업으로 자원배분이 옮겨감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이 연간 GDP의 0.41%가량에 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³⁾

3) 공기업 사장 임명 및 공공구매 계약을 통한 정부자원 배분 관련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적 특성이, Schoenherr(2018)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2007년에 당선된 모 대통령 이후로 현재에 이르러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만약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2018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의에 따르면 최소한 공기업 사장 임명 관행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과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Schoenherr(2018)

제2절 부패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부패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본 연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의식과 비교할 때 유의할 점은, 부패를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개별 기업이 누리는 성과 향상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패수준이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업종별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Fisman(2001)은 기업이 가진 정치적 연줄이 해당 기업의 성과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의 효시로 볼 수 있는 연구이다.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의 장기 독재로 인해 발생한, 기업별로 차별화된 수준의 정치적 연줄이 해당 기업의 성과 및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하르토 집권 말기 수하르토의 건강 상태 악화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때 정치적 연줄의 의존도에 따라 각 기업의 주가 변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논문에는 인도네시아 내 기업 집단별로 수하르토 정권과 맺은 정치적 연줄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소재 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25개 주요 기업 집단에 대한 5단계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문헌 검색을 통해 1995년부터 1997년 사이 수하르토의 건강 악화 관련 총 여섯 개의 에피소드를 찾아내고, 그 시작 및 종료 시점을 식별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벤트 연구(event study) 결과, 수하르토 정권과의 연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하르토의 건강 악화에 대한 소문이 나돌 때 주가 하락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수하르토의 건강 악화에 대한 소문의 심각성이 클수록 이러한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의 주가

의 분석 결과 도출된, 우리나라 특유의 관행에 따른 자원 배분의 상당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방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락 폭이 더 커진다는 결과도 나타난다. Fisman(2001)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존 인도네시아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수하르토 정권과의 정치적 연줄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Johnson and Mitton(2003)은 말레이시아에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촉발 및 자본통제의 시작이 말레이시아 내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친 영향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7년 7월부터 1998년 8월 사이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조금의 가치가 금융위기로 인해 하락하였는데,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의 시장가치 하락분 중 대략 9%가 이러한 정치적 연줄 관련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한편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 1998년 자본통제가 도입되면서 당시 마하티르 총리와 강한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던 기업에게 큰 편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연줄의 영향이 당시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분 중 32%가량을 설명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Faccio(2006)는 전 세계 47개 국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2만 개 남짓한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리고 이들 기업의 주가 변화에 정치적 연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7개 국가 중 35개 국가에서 기업 내 정치적 연줄이 존재하여 세계적으로 관련 현상이 상당히 팽배해 있음이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부패 정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Faccio(2006)는 기업의 고위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의회에 당선되거나 장관으로 임명될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정치적 연줄이 새롭게 생성될 때 해당 기업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며, 이러한 효과는 이미 기업의 고위경영진 혹은 대주주였던 이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Faccio, Masulis and McConnell(2006)은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전 세계 35개 국가에 분포해 있는 정치적 연줄을 가진 450개 기업을 식별하고, 이들 기업이 재무적 위기 상황에서 구제금융(bailout)을 받을 확률이

정치적 연줄이 없는 비교집단 기업에 비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정부가 지원받은 자금을 수혈받을 확률 역시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해당 논문은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 중에서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구제금융을 받은 시점 및 그 후 2년간의 재무적 성과에 있어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부채 확대를 통한 자금 조달에 더 치중하는 면을 보여준다. Faccio et al.(2006)은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들에서 향후 부채 상환 관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기대를 대부자들이 정확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양상을 해석하고 있다.

Leuz and Oberholzer-Gee(2006)는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이유를 자국 내 정치적 연줄을 통한 국내 자금 조달의 용이성 때문으로 상정하고, 실제 인도네시아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하르토 정권과 강한 정치적 연줄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공개 거래되는 해외증권 발행을 더 적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 기존에 정치적 연줄을 확보해 놓은 정치인이 권력을 잃게 되는 경우, 기존에 수하르토 정권 및 친수하르토 성향의 후속 정권에서 정치적 연줄이 강했던 기업들은 바뀐 정권하에서 성과가 하락하고, 해외에서의 자본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을 아울러 보여주기도 한다.

Fan, Wong and Zhang(2007)은 본 절에서 소개하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업의 정치적 연줄이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1993년에서 2001년 동안 중국에서 새롭게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790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Fan et al.(2007)은 이들 기업 중 27%가량이 전직 혹은 현역 정부 관료 출신 최고경영자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정치적 연줄을 가진 중국 기업의 기업공개(IPO) 이후 3년간 주식시장 내 성과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연줄을 가진 중국 내 상장 기업의 기업공개 후 3년간 주가 상승률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거의 18%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업공개 후 기업이익 증가, 매출액 증가, 매출액 대비 이익률 변화 등에 있어서도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이 더 낮은 성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Fan et al.(2007)은 이러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줄이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지어 기업공개 첫날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후 40일 정도만 지나도 통계적으로 유의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 확대가 야기하는 투자자들의 부정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투자자들의 이러한 부정적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관료 출신 최고경영자들이 관료 출신들을 이사회에 더 많이 지명하고, 전문적 배경을 갖춘 비관료 출신들은 더 적게 지명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Ferguson and Voth(2008)는 집권 세력과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비교적 최근의 일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1933년 초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집권한 직후 나치 세력과 기존에 형성해 놓은 정치적 연줄 정도 차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기업별로 주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히틀러의 집권 이전 나치 세력과 연줄을 확보해 놓았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나치 정권 수립 이후 확연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고, 그 차이가 1933년 1월부터 3월 사이 5%에서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ldman, Rocholl and So(2013)는 미국 의회 선거 결과 다수당이 바뀐 상황에 주목한다. 이 같은 다수당 지위의 역전에 따라 기존에 어느 한 당과 정치적 연줄을 가진 이사진(board members)을 보유한 기업이 정부 공공구매 계약을 따내는 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정치적 연줄에 따른 공공 자원 배분 현상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부패와 지대추구행위의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선진국에서도 만연해 있음을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

분석을 위해 대상 기업별로 이사진의 개인별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특정 정당과의 연결 여부를 우선 식별한 후, 1994년 미국 의회 선거를 분기점으로 1990~1993년 사이와 1995~1998년 사이 각 기업의 공공구매 계약 액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994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과 연결된 이사진을 가진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2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액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다수당 지위를 잃은 정당과 연결된 이사진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7,700만 달러의 계약 액수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Goldman et al.(2013)은 이처럼 유의한 결과가 기업의 업종 및 과거 트렌드, 그리고 의회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역구와 기업 소재 주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통제하더라도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Amore and Bennedsen(2013)은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에서조차,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줄을 활용한 기업의 지대추구행위가 갖는 경제적 함의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Amore and Bennedsen(2013)은 덴마크 내 개별 지방정부의 정치인 1인당 관할하는 인구수의 증가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정치권력 확대가, 지역 정치인과의 가족 관계로 맺어진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는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Amore and Bennedsen(2013)은 덴마크 개별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인구 크기를 외생적으로 변화시킨 2005년도 행정개혁에 착안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행정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정치권력이 확대된 지역에서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던 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OROA: operating return on assets)은 지방정부의 권력이 커지지 않은 지역에서 정치적 연줄을 확보하고 있던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그 탄력성이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 정치권력 확대가 정치적 연줄을 가진 개별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Tahoun(2014)은 미국 의회 의원의 기업주식 보유행태가 어떤 기업이 그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이러한 주

식 보유와 정치자금 기부로 의회 의원과 맺어진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은 정부가 발주한 공공구매 계약 수주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됨을 보였다. 아울러 이처럼 정치자금 기부에 근거한 정치인의 주식 보유가 기업과 계약 불가능한 공생관계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미국 의회 의원들의 642개 기업 주식 소유현황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의 주식을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와 주식 소유 간 연관관계가 높아질수록 해당 기업에 대한 정치인의 공공구매 계약 제공이 많아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정치인이 과거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 향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을 확률은 낮아진다. Tahoun(2014)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해당 기업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정치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 기업은 향후 공공구매 계약에 실패하면서 재무성과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Akey(2015)는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미국 의회 선거 관련 자료 및 미국 기업들의 의회 선거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에서는 의회 선거에서 근소하게 승리한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정치적 연줄을 맺은 기업이 근소하게 패배한 후보와 연줄을 맺은 기업에 비해 선거 후 주가 흐름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회귀단절 디자인(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결과는 선거 승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의 선거 직후 3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기업 주식가치 상승률이 패자에게 기부한 기업에 비해 3%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세입 및 세출 관련 등 권한이 막강한 의회 위원회에 재직 중인 정치인과 연줄을 맺었을 경우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Akey(2015)의 연구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많이 기부한

기업일수록 전문 로비스트 활용 및 전직 정부관료 채용 등 다른 형태의 정치적 활동 역시 더욱 활발하게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기업의 정치적 연줄 확대가 전방위적으로 조직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Akey(2015)는 내리고 있다.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 살펴본,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경제 내에 만연한 부패는 해당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장기 경제성장 및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에 의해 발생하는 경쟁적인 지대추구행위는 상당한 사회후생 손실을 야기하고, 특정 국가의 부패수준이 높아지면 해당 국가의 물적자본 투자가 위축되어 장기 경제성장이 저해되며, 정부지출 항목 중 장기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교육부문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더불어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연줄에 따른 자원배분이 일어나는 부패 양상에 따라 개발도상국 경제 전체에 대한 효율성 상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정치적 연줄을 통해 특혜 대출을 받은 개발도상국 기업의 부도로 인해 납세자들이 떠안아야 할 사회적 부담이 상당하고, 더불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왜곡은 개발도상국 경제에 커다란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에 의한 자원배분 효율성 상실은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 않음을 선행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와 한국 등 선진국 혹은 선진국에 근접한 국가에서조차 정치적 연줄에 따른 기업 간 자원배분 왜곡이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 감소, 정부 발주 공사의 지연 증가 및 비용 상승 등의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더불어 일부 선행연구는 기업의 정치적 연줄을 활용한 정부 규제 회피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고 기업 자체의 기술혁신 노력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관련 선행연구는 부패가 만연할 때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진입 장벽 강화, 생산품목의 가격 상승 등의 형태로도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됨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부패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생산적인 정부지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빈곤층이 피해를 입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부패가 만연할 때 부패한 정치인 혹은 관료와의 연결고리를 가진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주가 상승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규제금융 수혜 가능성 상승, 국내자금 조달 수월성 제고, 공공구매 계약 증가, 이익률 및 매출액 상승 등의 측면에서 해당 기업의 성과가 부패 연결고리 활용을 통해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수 선행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장기 집권 독재정권과의 연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해당 정권의 입지가 취약해지는 이벤트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존 개발도상국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이 장기 집권 독재정권과의 정치적 연줄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이유를 자국 내 정치적 연줄을 통한 국내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다.

일부 선행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기업의 고위경영진 혹은 대주주였던 이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정치적 연줄이 새롭게 생성될 때 해당 기업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함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국 정부로부터 규제금융을 받을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권세력과의 정치적 연줄을 가진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비교적 최근 시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1930년대

독일 나치 정권과 독일 기업 간 유착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선행연구도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정치적 연줄에 따른 공공자원 배분 현상이 미국처럼 부패와 지대추구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국가, 덴마크처럼 실제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에서조차 만연해 있고, 정치적 연줄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향상되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과 연결된 이사진을 가진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당한 크기의 정부 공공구매 계약 액수 증가를 나타내었고, 덴마크에서 행정개혁에 의해 지방정부의 정치권력이 확대된 지역에서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던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더불어 미국에서 주식 및 정치자금 제공을 통해 의회 의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기업의 공공구매 계약 체결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 미국 의회 선거 승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의 선거 직후 기업 주식가치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남은 물론 정치자금을 많이 기부한 기업일수록 전문 로비스트 활용 및 전직 정부관료 채용 역시 더욱 활발함을 보인 연구도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본 장에서 소개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업의 정치적 연줄이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제시한 선행연구도 없지 않다. 즉 정치적 연줄을 가진 중국 내 상장기업의 기업공개 후 주가 상승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이익 및 매출액 증가에 있어서도 더 낮은 성과를 나타내는데, 이를 투자자들의 특정 기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 확대가 갖는 부정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결국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인 및 관료와의 부패관계를 형성한 개별 기업은 대체적으로 상당한 사적 이익을 향유하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패의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즉 부패는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의 괴리를 야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과연 부

18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패가 노동시장 및 고용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 3 장

업종별 부패인식 조사 결과

본 장에서는 부패가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국내 업종별 부패인식도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 산정에 활용하는 여러 부패인식도 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양한 집단(공무원, 외국인, 전문가, 기업인, 일반 국민 등)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를 국내 업종별 부패인식지수 산정에 응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향후 4장에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 본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본 장에서는 우선 해당 조사 결과 관련 기초통계를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1절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업종별 부패인식도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는 2018년 9월부터 10월 사이 위탁받은 전문 조사업체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 유효표본 수는 300인으로서,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전화설문 조사 대상자 구성은 반부패 관련 정책에 정통한 담당 부처

공무원 및 반부패 정책 방향 및 집행방식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업종별 기업들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식 관련 상당한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부패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학술지에 최근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는 학자 등 크게 세 그룹으로 이뤄졌다. 가급적 세 그룹 간 비중이 유사하게 유효표본에 포함되도록 하였는데,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활동 분야가 “시민단체”로 구분된 경우에도 상당수 활동가는 학계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는 전화 조사 방식으로 수행된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문항 구성을 평이하고 간략하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부록>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조사는 응답자 특성 확인을 위한 사전 질문 외에 총 16개의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오지 선

<표 3-1> 전화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 수	비중(%)
전체		300	100.0
성별	남성	231	77.0
	여성	69	23.0
연령	19-29세	49	16.3
	30-39세	64	21.3
	40-49세	78	26.0
	50-59세	83	27.7
	60세 이상	26	8.7
활동 분야	공무원	24	8.0
	시민단체	74	24.7
	증권사 애널리스트	119	39.7
	학자	83	27.7
시민단체 활동 74인의 타 분야 겸임 여부	교수 겸임	18	24.3
	기타 분야 겸임	52	70.3
	관련 정보 부재	4	5.4

다식 범주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⁴⁾ 즉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③ 전체 평균과 부패 정도가 비슷하다”,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 등 우리나라 경제 전체 수준 대비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5단계 척도로 설문하였다.

이때 부패의 정의는 <부록>에서 볼 수 있듯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으로서, 기업 내부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보다는 정관계 권력층과 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하였다. 더불어 역시 <부록>에 제시되어 있듯 응답 시 최근 몇 년간 겪은 직·간접 경험을 토대로 업종별 부패 정도를 답변하도록 요청하였다. 따라서 조사가 2018년에 실시되었긴 하나, 조사 결과에는 그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각 업종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6개 업종 구분에 있어 본 조사는 학술 및 정책연구 목적으로 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등을 활용하기보다 응답자의 답변상 편의를 위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담당 업종 구분 기준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 활용된 16개 업종 구분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건설
- ② 금속광업
- ③ 전기전자/통신장비
- ④ 생활소비재
- ⑤ 통신/미디어
- ⑥ 소프트웨어/인터넷
- ⑦ 운송
- ⑧ 유통

4) 이러한 범주형 설문은 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7: Full Source Description”에 제시된 것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 산정에 활용하는 여러 부패인식도 조사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 ⑨ 유틸리티
- ⑩ 금융
- ⑪ 음식료/담배
- ⑫ 자동차
- ⑬ 제약/바이오
- ⑭ 조선/중공업/기계
- ⑮ 화학
- ⑯ 호텔/레스토랑/레저

제2절 조사 결과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된 방식으로 수행된, 업종별 부패인식도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담당 업종 구분 기준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여 구분된 본 조사의 16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전체 유효표본 300개에 대해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에서 응답자 전체에 대한 업종별 부패인식도 평균 산정 결과를 볼 때,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인식하기에 현 시점에서 부패 정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종(부패인식도 평균 2.05)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 설계상 부패인식도가 가장 높으면 1점, 낮으면 5점을 부여받고 전체 평균 수준의 부패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면 3점이 부여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부패수준에 비해 건설업종의 부패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건설업종 다음으로 본 조사 응답자들이 부패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으로서 평균 부패인식도가 2.42였다. 그다음으로는 유통(평균 2.54), 운송(평균 2.58), 통신/미디어(평균 2.60)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패인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3-2〉 업종별 부패인식도(5단계 척도) 평균 : 응답자 전체(n=300)

업종	부패인식도 평균
건설	2.05
금속광업	2.83
전기전자/통신장비	2.90
생활소비재	3.13
통신/미디어	2.60
소프트웨어/인터넷	3.12
운송	2.58
유통	2.54
유틸리티	2.88
금융	2.71
음식료/담배	3.10
자동차	2.77
제약/바이오	2.42
조선/중공업/기계	2.73
화학	3.02
호텔/레스토랑/레저	2.85

한편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인식하기에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부패 정도가 낮은 업종은 생활소비재(평균 3.13), 소프트웨어/인터넷(평균 3.12), 음식료/담배(평균 3.10), 화학(평균 3.02) 업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업종 구분 방식에 따른 총 16개의 업종 중 경제 전체 평균 부패수준보다 응답 결과 산출된 평균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이 위의 4개 업종에 불과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본 조사 결과 응답자 전체 평균 부패인식도에서 부패수준이 가장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 간 점수 차이는 1.08이었고, 이는 본 조사에서 경제 전체 평균보다 대략적으로 부패 수준이 높은 편인 업종과 평균보다 미세하게 부패 수준이 낮은 업종 사이의 차이를 반영한다. 향후 4장에서는 이러한 업종 간 부패인식도 차이가 각 업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의 차이와 얼마나 결부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표 3-2>에서 제시된 유효표본 300인 전체에 대한 업종별 부패인식

도 평균 산출 결과가 과연 조사 대상 세부 집단별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역시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세부 집단별로 업종별 부패인식도에 있어 차이가 크다면, <표 3-2>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핵심 정량분석을 수행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표 3-3>~<표 3-5>는 본 조사의 대상이 된 세부 집단별로 업종별 부패인식도 평균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3-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건설 및 제약/바이오를 부패 정도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지목했고, 통신/미디어 및 금융 업종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응답자들은 유틸리티, 화학, 호텔/레스토랑/레저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부패 정도가

<표 3-3> 업종별 부패인식도(5단계 척도) 평균 : 응답자 활동 분야별

업종	부패인식도 평균(활동 분야별)			
	공무원 (n=24)	시민단체 (n=74)	증권사 애널리스트 (n=119)	학자 (n=83)
건설	2.13	1.88	2.33	1.78
금속광업	2.96	2.76	2.92	2.73
전기전자/통신장비	2.71	2.73	3.21	2.67
생활소비재	2.88	2.99	3.25	3.14
통신/미디어	2.33	2.45	2.93	2.35
소프트웨어/인터넷	2.88	2.95	3.48	2.83
운송	2.58	2.68	2.73	2.28
유통	2.54	2.41	2.77	2.33
유틸리티	3.04	2.93	2.84	2.86
금융	2.33	2.76	2.96	2.41
음식료/담배	2.88	3.23	3.06	3.10
자동차	2.75	2.72	2.86	2.69
제약/바이오	2.13	2.28	2.78	2.11
조선/중공업/기계	2.83	2.61	2.74	2.81
화학	3.04	2.89	3.09	3.04
호텔/레스토랑/레저	3.00	2.81	2.97	2.65

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 부패인식도와 비교할 때,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인식은 거의 유사하고, 반면 부패 정도가 낮은 업종에 대한 인식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부패수준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역시 건설을 지목했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유통, 통신/미디어 업종을 차례로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업종은 음식료/담배 정도이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시민단체 소속 응답자들의 인식은 응답자 전체의 평균적인 업종별 부패인식도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업종별 부패인식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패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업종은 역시 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운송, 조선/중공업/기계, 유통, 제약/바이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프트웨어/인터넷, 생활소비재, 전기전자/통신장비, 화학, 음식료/담배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패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역시 응답자 전체의 평균 인식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학술지에 최근 논문을 게재한 학자들의 경우, 역시 건설업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운송, 유통, 통신/미디어 업종 등에 대해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부패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으로는 생활소비재, 음식료/담배, 화학 등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자들의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전체 평균과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표 3-3>에 제시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300명에 대한 업종별 부패인식도 설문 결과가 특정 세부집단의 응답 양상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수행될 본 연구의 주된 정량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의 활동 분야별 응답 결과를 별도로 활용하기보다, 전체 유효표본의 응답 내역을 활용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표 3-4>는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업종별 부패인식도에 대

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표 3-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앞서 응답자의 활동 분야에 따라 나뉜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업종의 부패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20대 이하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금융, 조선/중공업/기계, 운송, 유통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응답자들은 건설업 다음으로 유통, 제약/바이오, 자동차, 운송 업종에 대해 부패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0대 응답자들은 건설업종에 이어 제약/바이오, 유통, 운송, 통신/미디어 업종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50대 응답자의 경우 제약/바이오, 유통, 통신/미디어, 운송 등이 건설업 다음으로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이

<표 3-4> 업종별 부패인식도(5단계 척도) 평균 : 응답자 연령대별

업종	부패인식도 평균(연령대별)				
	20대 이하 (n=49)	30대 (n=64)	40대 (n=78)	50대 (n=83)	60대 이상 (n=26)
건설	2.47	2.19	1.90	1.87	1.96
금속광업	3.06	2.84	2.74	2.81	2.69
전기전자/통신장비	3.24	3.00	2.79	2.77	2.77
생활소비재	3.20	3.23	2.95	3.13	3.23
통신/미디어	2.82	2.80	2.58	2.45	2.31
소프트웨어/인터넷	3.49	3.27	3.06	2.86	3.08
운송	2.67	2.77	2.53	2.51	2.35
유통	2.71	2.72	2.45	2.42	2.42
유틸리티	2.78	2.89	2.90	2.92	2.92
금융	2.63	2.94	2.72	2.57	2.69
음식료/담배	2.96	3.08	2.95	3.19	3.54
자동차	2.84	2.77	2.63	2.90	2.62
제약/바이오	2.73	2.73	2.23	2.19	2.35
조선/중공업/기계	2.63	2.84	2.62	2.77	2.88
화학	3.04	3.11	2.95	3.11	2.73
호텔/레스토랑/레저	2.84	3.05	2.90	2.67	2.77

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에서는 건설업에 이어 통신/미디어, 운송, 제약/바이오, 유통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패 정도를 가진 업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부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업종은 20대 이하에서 소프트웨어/인터넷, 전기전자/통신장비, 생활소비재, 금속광업, 화학 등이었고, 30대에서는 소프트웨어/인터넷, 생활소비재, 화학, 음식료/담배, 호텔/레스토랑/레저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소프트웨어/인터넷 업종만이 평균 3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에서는 음식료/담배, 생활소비재, 화학 순으로 부패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에서는 음식료/담배, 생활소비재, 소프트웨어/인터넷 업종에서 부패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이처럼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응답자 전체의 평균적인 업종별 부패인식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응답자 전체에서 부패인식도가 높았던 건설, 제약/바이오, 유통, 운송, 통신/미디어 등의 업종이 모든 연령대에서 부패인식도가 높은 업종으로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응답자 전체에서 부패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던 생활소비재, 소프트웨어/인터넷, 음식료/담배, 화학 등의 업종이 모든 연령대별 응답 결과에서도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대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4장에서 수행될 정량분석에서는 연령대별 부패인식을 활용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표 3-5>는 응답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부에 따라 업종별 부패인식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표 3-5>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으로서 건설, 제약/바이오, 유통, 운송, 통신/미디어를 차례로 지목하였고, 여성 응답자는 건설, 금융, 통신/미디어, 운송, 제약/바이오 순서로 부패수준이 높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반면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 남성은 음식료/담배, 생활소비재, 소프트웨어/인터넷, 화학 등을

〈표 3-5〉 업종별 부패인식도(5단계 척도) 평균 : 응답자 성별

업종	부패인식도 평균(성별)	
	남성(n=231)	여성(n=69)
건설	2.03	2.13
금속광업	2.83	2.84
전기전자/통신장비	2.93	2.83
생활소비재	3.15	3.06
통신/미디어	2.63	2.51
소프트웨어/인터넷	3.13	3.07
운송	2.59	2.55
유통	2.51	2.65
유틸리티	2.90	2.81
금융	2.77	2.48
음식료/담배	3.16	2.87
자동차	2.83	2.57
제약/바이오	2.38	2.55
조선/중공업/기계	2.78	2.58
화학	3.06	2.90
호텔/레스토랑/레저	2.87	2.77

지목하였고, 여성의 경우 소프트웨어/인터넷과 생활소비재에 대해서만 평균 3.0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성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패인식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남성은 전체 응답자와 인식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고, 여성의 경우도 거의 흡사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도 응답자 전체의 인식과 성별 응답자들의 인식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4장의 본 분석에서 성별 응답 내역을 활용한 별도의 분석은 수행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까지는 응답자가 각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한 결과에 대한 분석 내역을 제시하였다. 이제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이 다섯 가지 보기 중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혹은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를 선택하여 해당 업

종의 부패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응답자의 비중, 그리고 반대로 다섯 개의 보기 중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혹은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를 택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응답의 비율을 알아보기로 한다.

<표 3-6>은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비율과 긍정적인 비율을 업종별로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결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정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을 부패인식도가 높은 업종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을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부정 응답 비율이 낮은 업종을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낮은 업종을 부패인식도가 높은 업종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표 3-6> 업종별 부패인식도 부정 및 긍정 응답 비율 : 응답자 전체(n=300)

(단위: %)

업종	부정 응답 (보기 1 혹은 2 선택) 비율	긍정 응답 (보기 4 혹은 5 선택) 비율
건설	75.7	6.0
금속광업	29.0	13.0
전기전자/통신장비	28.0	21.0
생활소비재	16.0	26.7
통신/미디어	47.0	15.7
소프트웨어/인터넷	20.7	32.3
운송	46.0	12.0
유통	51.0	11.7
유틸리티	30.7	20.7
금융	41.0	18.0
음식료/담배	18.7	27.0
자동차	32.3	14.0
제약/바이오	54.7	11.3
조선/중공업/기계	35.7	14.3
화학	19.0	21.3
호텔/레스토랑/레저	31.3	18.7

것이다.

먼저 부패인식도가 높은 업종 순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은 건설, 제약/바이오, 유통, 통신/미디어, 운송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은 업종으로는 건설, 제약/바이오, 유통, 운송, 금속광업이 순서대로 지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5점 척도 평균 기준 업종별 부패인식도 순서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을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긍정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은 소프트웨어/인터넷, 음식료/담배, 생활소비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 응답 비율이 낮은 업종으로는 생활소비재, 음식료/담배, 화학, 소프트웨어/인터넷 등이 순서대로 지목되었다. 이 역시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업종별 부패인식이 낮은 순서를 매겼을 때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업종별 부패인식도를 부정 및 긍정 응답 비율에 따라 살펴보다라도 5점 척도 평균을 활용할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4장에서 수행되는 주된 정량분석에서는 업종별 부패인식도를 5점 척도 평균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활용하기로 한다. 다만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부정 및 긍정 응답 비율을 보조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제3절 소 결

본 연구의 정량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를 전화설문 방식으로 공무원 및 시민단체,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련 학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부패의 범위로서 기업 내부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보다는 정관계 권력층과 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은 건설, 제약/

바이오, 유통, 운송, 통신/미디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패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은 생활소비재, 소프트웨어/인터넷, 음식료/담배, 화학 등이었다.

이러한 전체 응답자 대상 설문 결과는, 응답자의 활동 영역, 연령대 및 성별 등으로 나누어 세부 집단별로 분석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정량분석에서는 유효표본 전체의 응답 내역을 활용할 것이다.

더불어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적 및 긍정적 응답의 비율을 활용하여 각 업종을 평가한 결과 역시 5점 척도 평균을 활용하여 산정한 업종별 부패인식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수행될 주된 정량분석에서 응답자 전체의 업종별 5점 척도 평균 부패인식도를 활용할 것이다. 다만 업종별 부정 및 긍정 응답 비율을 보조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일종의 강건성 검증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제 4 장

부패가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이론적 가설 및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소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 간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변수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업종별 기업에 대한 분석 데이터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고용의 양과 질,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 등 인적자원 투자변수가 해당 업종의 부패인식 정도와 갖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동일 업종 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법적 지대추구행위가 늘면서 그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릴 경우 개별 기업 수준에서 시장점유율 등의 성과가 개선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즉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서는 일종의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별 기업 수준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가 저해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본 장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적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불법적 지대추구에 드는 비용이 커지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고용인원이 감소한다.

가설 2: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불법적 지대추구에 드는 비용이 커지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현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다.

위의 두 가설은 향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민간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어우러질 경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일종의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 상태에서 벗어나,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리기보다 사람에게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결과가 달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본 장에서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할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은 임의효과(random effect)모형이다.

$$y_{ijt} = c_j\beta + x'_{ijt}\gamma + (\alpha_{ij} + \epsilon_{ijt})$$

이때 y_{ijt} 는 j 업종에 속한 i기업이 t시점에서 보여주는 고용인원 혹은 인적자원 투자를 가리키는 종속변수이고, c_j 는 j업종의 부패수준을 나타내는 본 모형의 핵심 설명변수이다. x_{ijt} 는 업종별 부패수준이 해당 업종의 기업 고용 및 인적자본 투자와 갖는 관계를 분석할 때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통제하는 기업 단위 설명변수의 벡터이다. ϵ_{ijt}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j업종의 부패수준을 나타내는 c_j 의 경우, 2018년에 본 연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인 관계로 연도별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 연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 각 업종의 부패수준이 2018년도에 조사된 결과와 별다른 차이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가정이 비교적 최근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으나, 최근이 아닌 거의 10년 전까지 성립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으므로, 강건성 검증을 위해 비교적 최근 연도 자료만을 활용한 분석 결과 역시 제시할 것이다.

개별 기업효과를 나타내는 α_{ij} 는 각 기업에 대해 시간 불변의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까지 통제되는 모형은 아니므로 내생성 편향(endogeneity bias)가 상당 부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모형 추정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임의효과모형의 주된 가정은 α_{ij} 가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α_{ij} 가 ϵ_{ijt} 와 함께 하나의 오차항 $u_{ijt} = \alpha_{ij} + \epsilon_{ijt}$ 로 흡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차항 구조를 가진 임의효과모형의 추정은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를 앞서 소개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와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활용된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는 조사 대상인 기업의 NICE 재무정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사의 3~6차년도까지 균형 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추가 자료 중 본사 데이터와 NICE 재무정보 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본사 데이터의 경우 표기된 조사 연도보다 1년 전의 내역을 조사한 점을 감안하여, 본사 데이터와 재무정보 데이터 간 실제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두 자료 간 매칭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병합된 분석 데이터에서 핵심 종속변수는 크게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것, 그리고 현 종사자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우선 고용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각 기업의 해당 연도 말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인원을 활용하였다. 한편 인적자원 투자 관련

변수로는 해당 연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총액을 사용하였다. 핵심 설명변수는 각 기업 소속 업종의 부패인식도로서,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각 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산총계 등을 활용하였고, 일부 모형에서는 각 기업이 속한 업종의 자본집약도를 통제하기 위해 중화항공업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앞 장에서 소개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활용된 업종 구분은,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에서 활용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은 업종 변환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을 밝힌다.

<표 4-1> 표준산업분류의 부패인식도 조사 업종 구분 변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부패인식도 조사 업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음식료/담배
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생활소비재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약/바이오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생활소비재
24. 1차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광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전자/통신장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조선/중공업/기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조선/중공업/기계

〈표 4-1〉의 계속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부패인식도 조사 업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생활소비재
41. 종합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건설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유통
58. 출판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통신/미디어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인터넷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
69. 부동산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변환 불가능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호텔/레스토랑/레저

자료: 필자 정리.

이때 앞 장에서 설명한 대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의 16개 업종 구분에 있어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담당 업종 구분 기준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일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 중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표 4-1>에서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에 제시될 분석에 불가피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제2절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본 절에서는 각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해당 기업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인적자원 투자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의효과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에 앞서 본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 분석 데이터 기초통계

변수	산술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 수
2009년 전체 고용인원(명)	895.53	318	2,125	51	26,090	324
2011년 전체 고용인원(명)	937.15	332.5	2,146.36	49	22,649	324
2013년 전체 고용인원(명)	1,033.01	339	2,395.04	41	21,803	324
2015년 전체 고용인원(명)	1,000.96	345	2,300.78	13	21,656	324
2009년 정규직 인원(명)	775.14	298	1,709.30	50	17,847	324
2011년 정규직 인원(명)	812.06	302	1,773.92	49	17,553	324
2013년 정규직 인원(명)	862.49	327	1,866.62	41	17,623	324
2015년 정규직 인원(명)	873.62	329.5	2,011.43	13	21,217	324
2009년 교육훈련비 총액(백만 원)	536.96	70	2,115.10	-9	30,300	324
2011년 교육훈련비 총액(백만 원)	579.94	54.5	2,288.66	-9	29,100	324
2013년 교육훈련비 총액(백만 원)	634.87	56	2,456.38	-9	25,793	324

〈표 4-2〉의 계속

변수	산술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 수
2015년 교육훈련비 총액(백만 원)	553.70	36.5	2,088.30	-9	21,992	324
2009년 복리후생비 총액(백만 원)	8,263.94	1,312	45,915.16	-9	741,000	324
2011년 복리후생비 총액(백만 원)	7,770.58	1,467.5	34,754.02	-9	556,993	324
2013년 복리후생비 총액(백만 원)	8,266.15	1,428	38,548.64	-9	617,321	324
2015년 복리후생비 총액(백만 원)	7,831.08	1,384	40,837.47	-9	693,267	324
2009년 매출액 (십억 원)	752	126	3,420	10	44,400	319
2011년 매출액 (십억 원)	737	153	2,660	6.51	32,600	322
2013년 매출액 (십억 원)	810	155	2,790	0.69	35,700	320
2015년 매출액 (십억 원)	762	149	2,490	2.03	29,200	320
2009년 영업이익 (십억 원)	66.6	5.38	402	-75.5	6,540	319
2011년 영업이익 (십억 원)	56.4	7.61	322	-788	5,050	322
2013년 영업이익 (십억 원)	49.3	6.02	220	-174	2,790	320
2015년 영업이익 (십억 원)	37.4	5.01	201	-755	2,350	320
2009년 자산총계 (십억 원)	2,190	128	16,900	11.7	262,000	319
2011년 자산총계 (십억 원)	2,470	151	17,300	0.40	255,000	322
2013년 자산총계 (십억 원)	2,780	183	18,400	1.70	259,000	320
2015년 자산총계 (십억 원)	3,020	184	19,700	2.51	271,000	32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2>에 따르면,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의 3~6차년도 균형 패널 본사 데이터와 NICE 재무정보 데이터를 병합하여 생성한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에 포함된 324개 기업에 대해 기업당 고용인원의 산술평균이 2015년 기준 1,000명 안팎이고, 이 중 정규직 인원은 평균 870명 남짓이다. 2015년 기준 교육훈련비는 평균 5억 5,000만 원 남짓이고, 복리후생비의 산술평균은 78억 원 남짓에 이른다. 한편 2015년 매출액,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은 7,620억 원 및 374억 원으로 나타나고, 평균 자산총액은 3조 원 남짓에 달하고 있다. <표 4-2>에 제시된 모든 변수에서 산술평균은 중위값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내고 있고, 모든 변수에서 기업 간 편차가 극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가. 기본모형 분석

앞에서 살펴 본 기초통계를 염두에 두고, 우선 각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해당 기업의 고용의 양에 미치는 영향을 임의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패널 자료상의 연도별 거시경제 여건 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변수를 모든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표 4-3>에 제시된 결과는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3~6년차 균형 패널 자료 및 재무정보 데이터를 병합한 자료에 포함된 324개 기업 중 앞의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을 부패인식도 조사 업종과 매칭할 수 없었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01개 기업의 패널 자료를 임의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이때 패널 자료에 포함된 각 기업의 연도별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일반 표준오차가 아닌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활용하여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표 4-3>의 모든 모형에서 연도더미를 통제하고 있다.

<표 4-3>의 결과는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전

〈표 4-3〉 업종별 부패수준과 전체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전체 고용인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인식도)	1.51** (0.74)	1.08** (0.51)	1.05** (0.53)
log(매출액)		0.32*** (0.06)	0.33*** (0.06)
log(영업이익)		-0.01 (0.01)	-0.01 (0.01)
log(자산총계)		0.27*** (0.05)	0.26*** (0.05)
중화학공업더미			-0.04 (0.07)
연도더미 통제	O	O	O
상수	4.42*** (0.79)	-6.21*** (0.81)	-6.17*** (0.84)
관측 수	1,189	969	969
R ²	0.00	0.71	0.71
Prob>χ ²	0.04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체 고용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3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자산총액의 로그값을 통제하고, 더불어 업종별 자본집약도를 통제하기 위해 중화학공업더미까지 통제한 상태로 분석할 때,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1% 개선되면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패수준이 낮은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고용의 양을 늘릴 여력이 유의미하게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 4-4>는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해당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역시 임의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업종 단위 부패수준이 기업 단위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4-4〉 업종별 부패수준과 정규직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정규직 고용인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인식도)	1.44* (0.76)	1.16** (0.53)	1.15** (0.52)
log(매출액)		0.30*** (0.06)	0.30*** (0.06)
log(영업이익)		-0.01 (0.01)	-0.01 (0.01)
log(자산총계)		0.27*** (0.05)	0.27*** (0.05)
중화학공업더미			0.03 (0.06)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4.42*** (0.81)	-5.94*** (0.85)	-5.96*** (0.86)
관측 수	1,189	969	969
R ²	0.00	0.70	0.70
Prob>χ ²	0.04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4〉에 제시된 임의효과모형 분석 결과는 고용의 양만을 고려하여 전체 고용인원에 대한 부패수준의 영향을 고려할 때뿐만 아니라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여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볼 때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모든 통제변수가 들어간 모형 3을 기준으로 하면,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1% 개선될 때 해당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표 4-3〉의 모형 3 추정 결과 부패수준 1% 개선이 전체 고용인원 1.05%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정규직 고용인원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업종 단위 부패수준 개선이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의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

라, 전체 고용인원 중 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형태의 고용의 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강건성 검증

1) 부정적/긍정적 응답 비율 활용

앞에서는 각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기본모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이 다섯 가지 보기 중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혹은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를 선택하여 해당 업종의 부패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응답자의 비중, 반대로 다섯 개의 보기 중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혹은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를 선택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비중을 각각 활용하여 위 기본모형 분석에 대한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기로 한다.

먼저 <표 4-5>는 업종별 부패 수준이 해당 업종 내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설명변수로 해당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답변의 비중을 활용한 임의효과모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5>의 내용은 앞서 제시된 기본모형 분석에서 업종별 부패인식도 관련 설명변수의 설정 방식을 바꾸어 수행한 강건성 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도, 핵심 설명변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약해지기는 하나 기본적인 질적 결과는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표 4-3>에 제시된 기본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핵심 설명변수의 추정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했는데, <표 4-5>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약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5단계 답변 중 1단계와 2단계를 서로 간 차이 없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약해지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4-5〉 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과 전체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전체 고용인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	-0.28* (0.16)	-0.19* (0.10)	-0.18* (0.11)
log(매출액)		0.32*** (0.06)	0.33*** (0.06)
log(영업이익)		-0.01 (0.01)	-0.01 (0.01)
log(자산총계)		0.27*** (0.05)	0.27*** (0.05)
중화학공업더미			-0.03 (0.07)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6.92*** (0.54)	-4.49*** (0.56)	-4.51*** (0.56)
관측 수	1,189	969	969
R ²	0.00	0.70	0.71
Prob>χ ²	0.07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표 4-6>은 기본모형에 비해 바뀐 핵심 설명변수 설정 방식은 그대로 두고 종속변수를 정규직 고용인원으로 설정한 임의효과모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6>의 결과는 종속변수를 정규직 고용인원으로 놓고 설명변수 설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강건성 검증을 수행할 때 기본모형의 분석 결과가 질적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됨을 보여준다. 모형 1에서는 핵심 설명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기는 하나, 모형 2와 3에서는 <표 4-4>에도 나타난바,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모형 3을 기준으로 하면,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10% 줄어들면 해당 업종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은 2.3% 늘어나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표 4-6〉 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과 정규직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정규직 고용인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	-0.28 (0.17)	-0.23** (0.11)	-0.23** (0.11)
log(매출액)		0.30*** (0.06)	0.30*** (0.06)
log(영업이익)		-0.01 (0.01)	-0.01 (0.01)
log(자산총계)		0.27*** (0.05)	0.27*** (0.05)
중화학공업더미			0.05 (0.07)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6.84*** (0.56)	-4.02*** (0.58)	-4.05*** (0.57)
관측 수	1,189	969	969
R ²	0.00	0.70	0.70
Prob>χ ²	0.05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이는 앞의 <표 4-5>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기는 하나 모형 3의 추정 결과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부패 관련 부정적 응답 비율이 10% 감소할 때 전체 고용인원은 1.8%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표 4-6>의 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줄어들 때 전체 고용인원보다 정규직 인원의 증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기본모형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 감소가 해당 업종 내 기업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형태의 고용의 질 향상을 초래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는 설명변수로서 해당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답변의 비중을 활용하여 분석한 강건성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제 부패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을 설명변수로 활용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표 4-7>은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해당 업종 내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임의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7>에 나타난 업종별 부패수준과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간 관계는, <표 4-5>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할 때는 물론이고 <표 4-3>에서 5점 척도 평균을 바탕으로 한 기본모형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강하게 유의미하다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형 3에서 부패수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10% 상승하면, 해당 업종 내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7> 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과 전체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전체 고용인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	0.39** (0.18)	0.33*** (0.12)	0.33** (0.14)
log(매출액)		0.33*** (0.06)	0.33*** (0.06)
log(영업이익)		-0.01 (0.01)	-0.01 (0.01)
log(자산총계)		0.26*** (0.05)	0.26*** (0.05)
중화학공업더미			0.02 (0.08)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4.88*** (0.53)	-6.07*** (0.69)	-6.11*** (0.75)
관측 수	1,189	969	969
R ²	0.00	0.71	0.71
Prob>X ²	0.04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이처럼 긍정적 응답 비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 부패와 고용인원 간에 뚜렷한 관계가 추정되고 있다. 이는 앞 장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패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부패인식도가 가장 높은 업종의 경우 5점 척도로 평균 2점대 초반인 반면 상대적으로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에서도 평균이 3점대 초반에 그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높아 보인다. 즉 앞서 부정적 응답 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때에 비해 긍정적 응답률을 활용할 경우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이처럼 더 뚜렷하게 유의한 추정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 4-8>은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해당 업종 내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임의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8> 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과 정규직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text{정규직 고용인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text{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	0.35* (0.18)	0.30** (0.13)	0.33** (0.14)
$\log(\text{매출액})$		0.30*** (0.06)	0.30*** (0.06)
$\log(\text{영업이익})$		-0.01 (0.01)	-0.01 (0.01)
$\log(\text{자산총계})$		0.26*** (0.05)	0.27*** (0.05)
중화학공업더미			0.08 (0.08)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4.91*** (0.54)	-5.66*** (0.74)	-5.78*** (0.78)
관측 수	1,189	969	969
R^2	0.00	0.70	0.70
$\text{Prob} > \chi^2$	0.04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8>에서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4-6>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을 사용할 때나 <표 4-4>의 기본모형 분석 결과와 질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심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는 모형 1에서 다소 약하게, 모형 2와 3에서는 강하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10% 올라갈 때 해당 업종 내 기업의 정규직 인원이 3.3%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표 4-7>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동일한 긍정적 응답률 상승 폭에 대해 전체 고용인원과 정규직 인원의 증가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긍정적 응답률을 기반으로 설명변수를 설정할 경우, 다른 설명변수 설정 방식과 달리 부패수준 개선이 전체 고용인원 중 정규직 비율 상승이라는 형태의 고용의 질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부패수준 개선 시 정규직 고용인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2013년/2015년 자료만 활용

지금까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된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의 4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해 2018년도에 수행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과거 어느 시점에까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패널 분석의 형태를 유지하되 가급적 최근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강건성 검증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9>과 <표 4-10>은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2013년 및 2015년 자료만을 활용하여 앞서 <표 4-3>과 <표 4-4>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임의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의 2개 연도 자료만을 활용하여 <표 4-9>에서 전체 고용인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리고 <표 4-10>에서 정규직 인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 모두 핵심 추정계수의 값이 앞서 기본모형 분석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모형 3을 기준으로

할 때 <표 4-3>에서 핵심 추정계수가 1.05였던 것이 <표 4-9>에서는 1.04로 미세하게 작아지고, <표 4-4>에서 1.15였던 핵심 추정계수 값이 <표 4-10>에서는 1.17로 약간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표준오차 상승으로 인해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유의수준 10%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표 4-10>에서도 모형 3의 핵심 추정계수는 여전히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나 나머지 모형에서는 유의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업종별 부패수준과 전체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2013년 및 2015년 자료)

종속변수: log(전체 고용인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인식도)	1.03* (0.58)	1.03* (0.61)	1.04* (0.60)
log(매출액)		0.35*** (0.07)	0.35*** (0.07)
log(영업이익)		0.01 (0.02)	0.06 (0.02)
log(자산총계)		0.25*** (0.06)	0.25*** (0.06)
중화학공업더미			0.03 (0.08)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4.92*** (0.62)	-6.63*** (0.92)	-6.67*** (0.92)
관측 수	593	468	468
R ²	0.00	0.71	0.71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10〉 업종별 부패수준과 정규직 고용인원(임의효과모형, 2013년 및 2015년 자료)

종속변수: log(정규직 고용인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인식도)	0.97 (0.59)	1.17* (0.63)	1.17** (0.56)
log(매출액)		0.30*** (0.07)	0.29*** (0.07)
log(영업이익)		0.01 (0.01)	0.01 (0.01)
log(자산총계)		0.27*** (0.05)	0.27*** (0.05)
중화학공업더미			0.12* (0.07)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4.91*** (0.63)	-6.37*** (0.93)	-6.47*** (0.87)
관측 수	593	468	468
R ²	0.00	0.71	0.71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3.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본모형 분석

위에서는 업종 단위 부패수준 감소가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패수준 개선이 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 모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았다.

이제 업종 단위 부패수준이 변화할 때,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수행하는 현 종사자 대상 인적자원 투자에는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분석

해보기로 한다. 이때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연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총액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표 4-11>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하여 각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해당 기업의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1>에 제시된 결과는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이 낮아질수록 해당 업종 내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이 줄어드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고용인원 및 재무현황 관련 통제변수를 통제할 때 이러한 관계가 통

<표 4-11> 업종별 부패수준과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연간 교육훈련비 총액)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인식도)	-1.60 (1.76)	-3.53** (0.87)	-2.81*** (0.92)
log(전체 고용인원)		0.38* (0.21)	0.28 (0.23)
log(정규직 고용인원)		1.08*** (0.23)	0.75*** (0.24)
log(매출액)			0.17 (0.11)
log(영업이익)			-0.00 (0.04)
log(자산총계)			0.24*** (0.09)
중화학공업더미			-0.15 (0.13)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5.73*** (1.87)	-0.96 (0.99)	-6.70*** (1.43)
관측 수	1,127	1,127	921
R ²	0.02	0.65	0.69
Prob>X ²	0.00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계적으로 매우 강하게 유의함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개선될수록 해당 기업이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모형 3을 기준으로 하면, 부패인식도 1% 개선이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을 2.8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4-12>는 역시 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하여 각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해당 기업의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2> 업종별 부패수준과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연간 복리후생비 총액)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인식도)	-0.66 (0.83)	-1.69*** (0.45)	-1.81*** (0.46)
log(전체 고용인원)		0.28** (0.12)	0.08 (0.12)
log(정규직 고용인원)		0.80*** (0.12)	0.66*** (0.12)
log(매출액)			0.16*** (0.06)
log(영업이익)			0.01 (0.03)
log(자산총계)			0.12** (0.05)
중화학공업더미			-0.25*** (0.07)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8.19*** (0.89)	2.83*** (0.49)	-0.50 (0.75)
관측 수	1,177	1,177	959
R ²	0.01	0.66	0.70
Prob>χ ²	0.11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12>에 제시된 결과는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이 낮아질수록 해당 업종 내 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줄어드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고용인원 및 재무현황 관련 변수를 통제할 때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매우 강하게 유의함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교육훈련비 총액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개선될수록 해당 기업이 인적자원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측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모형 3을 기준으로 할 때, 부패인식도 1% 개선이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을 1.8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 개선이 해당 업종 내 기업 고용의 양과 질을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표 4-11>과 <표 4-12>에 제시된 결과는 상당히 놀랍다. 즉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 기업 관점에서 새로운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기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여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두 가지 대안을 모두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첫 번째 대안에 집중하면서 두 번째 대안을 단지 실행하지 않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심지어 기존의 투자까지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 행태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업 관점에서 첫 번째 대안이 정상재인 반면 두 번째 대안이 일종의 열등재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부패 감소로 인력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날 때, 두 가지 대안 중 첫 번째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는 반면 두 번째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행태적 특징이라고 가정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바로 설명된다. 다만 이같이 단순한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기존 인력에 대한 투자가 기업 관점에서 열등재여야 하는 원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보다 좀 더 현실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속해 있는 업종의 부패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 개별 기업에게 경영상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인력 충원보다는 기존 인력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택하게 될 것이다. 반면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 개별기

업이 처한 위험요인이 적은 상황을 상정하면, 기업 관점에서는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보다 신규 인력 충원과 같은 좀 더 과감한 형태의 투자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인력에 대한 기업의 투자 여력이 동일한 상황에서 경영상 위험도가 달라지면 두 가지 유형의 투자 사이에 대체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 인력에 대한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고 이에 발맞추어 두 가지 유형 모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만약 위험도 변화에 따른 대체에 의해 두 번째 유형의 투자 감소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처한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지면 두 가지 유형의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유형은 늘고 두 번째 유형은 줄어드는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나. 강건성 검증

1) 부정적/긍정적 응답 비율 활용

위의 기본모형 분석에서 본 연구가 원래 상정했던 이론적 예측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는 게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만 <표 4-11>과 <표 4-12>에 제시된 분석 결과가 앞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패 수준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응답 비율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할 때에도 질적으로 유지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표 4-13>과 <표 4-14>는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임의효과모형을 추정할 때 도출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표 4-15>와 <표 4-16>은 설명변수로서 부패수준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을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를 제시한다.

<표 4-13>에서 설명변수를 부정적 응답 비율로 변경하여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질적으로 <표 4-11>에 제시된 기본모형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10% 늘어날 때 해당 업종 내 기업의 교육훈련비 총액은 7% 증가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역시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표 4-14>에서 역시 설명변수를 부정적 응답 비율로 놓고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질적으로 <표 4-12>에 제시된 기본모형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10% 늘어날 때 해당 업종 내 기업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3.5% 증가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이 역시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표 4-13> 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과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연간 교육훈련비 총액)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	0.62** (0.32)	0.81*** (0.16)	0.70*** (0.17)
log(전체 고용인원)		0.35* (0.21)	0.25 (0.22)
log(정규직 고용인원)		1.10*** (0.22)	0.78*** (0.24)
log(매출액)			0.19* (0.11)
log(영업이익)			-0.00 (0.04)
log(자산총계)			0.21** (0.09)
중화학공업더미			-0.19 (0.13)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1.97* (1.05)	-7.33*** (0.61)	-11.80*** (1.00)
관측 수	1,127	1,127	921
R ²	0.04	0.65	0.69
Prob>χ ²	0.00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14〉 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과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임의효과 모형)

종속변수: log(연간 복리후생비 총액)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	0.24 (0.18)	0.33*** (0.09)	0.35*** (0.09)
log(전체 고용인원)		0.26** (0.12)	0.06 (0.12)
log(정규직 고용인원)		0.82*** (0.12)	0.68*** (0.12)
log(매출액)			0.16*** (0.06)
log(영업이익)			0.01 (0.03)
log(자산총계)			0.12** (0.05)
중화학공업더미			-0.25*** (0.07)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6.68*** (0.58)	-0.03 (0.38)	-3.51*** (0.62)
관측 수	1,177	1,177	959
R ²	0.02	0.66	0.70
Prob>χ ²	0.07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15〉에서 설명변수를 긍정적 응답 비율로 또다시 변경하여 교육훈련비 총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모든 모형에서 핵심 설명변수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유지하고,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분석 결과가 도출된 모형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결과와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4-15〉 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과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임의효과모형)

종속변수: log(연간 교육훈련비 총액)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	-0.21 (0.37)	-0.51** (0.20)	-0.35 (0.22)
log(전체 고용인원)		0.39* (0.22)	0.29 (0.23)
log(정규직 고용인원)		1.06*** (0.23)	0.73*** (0.25)
log(매출액)			0.12 (0.11)
log(영업이익)			-0.01 (0.04)
log(자산총계)			0.28*** (0.09)
중화학공업더미			-0.15 (0.14)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4.65*** (1.10)	-3.16*** (0.66)	-8.63*** (1.21)
관측 수	1,127	1,127	921
R ²	0.01	0.64	0.68
Prob>χ ²	0.00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한편 <표 4-16>에서 복리후생비 총액에 대해 설명변수를 긍정적 응답 비율로 놓고 분석한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모형 2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유의수준 1%가 아닌 5%에서 존재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표 4-12>와 <표 4-14>에서 제시된 질적 결과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4-16〉 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과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임의효과 모형)

종속변수: log(연간 복리후생비 총액)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	-0.10 (0.21)	-0.27** (0.11)	-0.37*** (0.13)
log(전체 고용인원)		0.30** (0.12)	0.09 (0.12)
log(정규직 고용인원)		0.78*** (0.12)	0.67*** (0.12)
log(매출액)			0.14** (0.06)
log(영업이익)			0.01 (0.03)
log(자산총계)			0.14*** (0.05)
중화학공업더미			-0.29*** (0.08)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7.77*** (0.62)	1.83*** (0.37)	-1.22* (0.70)
관측 수	1,177	1,177	959
R ²	0.00	0.66	0.69
Prob>χ ²	0.11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2) 2013년/2015년 자료만 활용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대해서도 패널 분석의 형태를 유지하되 가급적 최근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의 강건성 검증을 수행해보고자 한다. <표 4-17>과 <표 4-18>은 기업의 연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총액에 대해,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2013년 및 2015년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7〉 업종별 부패수준과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임의효과모형, 2013년 및 2015년 자료)

종속변수: log(연간 교육훈련비 총액)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인식도)	-2.18 (1.46)	-3.15*** (1.01)	-2.93*** (1.06)
log(전체 고용인원)		0.57** (0.26)	0.33 (0.27)
log(정규직 고용인원)		0.99*** (0.27)	0.84*** (0.27)
log(매출액)			0.21 (0.13)
log(영업이익)			0.01 (0.06)
log(자산총계)			0.12 (0.11)
중화학공업더미			-0.23 (0.15)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6.34*** (1.55)	-1.97* (1.12)	-6.24*** (1.71)
관측 수	552	552	438
R ²	0.01	0.67	0.71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17〉과 〈표 4-18〉은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대해 2013년과 2015년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더라도 그 질적인 결과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연도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할 때와 거의 유사하게 유지됨을 보여준다. 〈표 4-17〉에서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질적으로 〈표 4-11〉에 제시된 결과와 핵심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동일하고, 모형 3의 핵심 추정계수 값 역시 큰 변화

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표 4-18>에서 복리후생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시 <표 4-12>의 결과와 핵심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동일하고, 모형 3의 핵심 추정계수의 절대값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8> 업종별 부패수준과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임의효과모형, 2013년 및 2015년 자료)

종속변수: log(연간 복리후생비 총액)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업종별 부패인식도)	-0.77 (0.71)	-1.93*** (0.45)	-2.67*** (0.50)
log(전체 고용인원)		0.39*** (0.13)	0.11 (0.14)
log(정규직 고용인원)		0.70*** (0.14)	0.68*** (0.14)
log(매출액)			0.16** (0.07)
log(영업이익)			0.03 (0.03)
log(자산총계)			0.07 (0.06)
중화학공업더미			-0.35*** (0.08)
연도더미 통제	0	0	0
상수	8.31*** (0.77)	2.99*** (0.47)	0.89 (0.82)
관측 수	591	591	468
R ²	0.01	0.72	0.74

주: 괄호 안 숫자는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제3절 부패수준 개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본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및 민간부문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해 업종별 부패수준이 개선되어 현재 인식된 부패 정도가 가장 낮은 업종수준에 좀 더 근접하게 될 경우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타나게 될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에 포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을 대표한다고 상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률 혹은 정규직 비율에 대해 부패수준 개선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보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기업들의 현재 고용 규모 및 정규직 비율 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예측을 위해서는 향후 업종별 부패수준 개선이 어떠한 정도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 채택한 가정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16개 업종별 부패인식도와 부패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의 부패인식도 간 차이가 민간부문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표 3-2>에서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로부터 부패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건설업종(부패인식도 2.05)과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된 생활소비재(부패인식도 3.13) 사이의 격차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건설업종의 부패인식도가 향후 2.59까지 개선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나머지 14개 업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의 부패수준 개선이 일어나 생활소비재 업종과의 부패인식도 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상정할 것이다.

본 절에서 수행되는 시나리오 예측에서 그 근거로 삼고자 하는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표 4-3>의 모형 3 및 <표 4-4>의 모

형 3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이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1% 개선될 때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1.05%, 정규직 고용인원은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절의 시나리오 예측은 이러한 추정 결과들을 적용하여 수행될 것이다.

<표 4-3>과 <표 4-4>의 모형 3의 분석 대상이 된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 내 기업 수는 총 291개이다. 이들 기업의 2015년 전체 고용인원과 정규직 고용인원의 산술평균은 각각 1,017명 및 885명이고, 중위값은 각각 343명과 326명이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기준 업종별로 이들 291개 기업을 분류하여, 각 업종별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고용인원의 합계를 2015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표 4-19>와 같다.

<표 4-19> 업종별 전체 및 정규직 고용인원 합계(2015년)

업종	전체 고용인원(명)	정규직 고용인원(명)	부패인식도 평균
건설	267	267	2.05
금속광업	44,023	42,307	2.83
전기전자/통신장비	22,366	20,928	2.90
생활소비재	17,683	16,878	3.13
통신/미디어	6,312	5,949	2.60
소프트웨어/인터넷	26,002	18,648	3.12
유통	3,129	2,732	2.54
금융	67,523	49,903	2.71
음식료/담배	31,197	28,533	3.10
자동차	10,691	10,312	2.77
제약/바이오	6,498	6,365	2.42
조선/중공업/기계	36,043	32,978	2.73
화학	16,004	15,412	3.02
호텔/레스토랑/레저	8,077	6,354	2.85
총 합계	295,815	257,566	-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62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표 4-19>는 본 시나리오 예측에 활용될 291개 기업의 2015년도 전체 고용인원 295,815명과 그중 정규직 인원 257,566명의 업종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표 4-19>에 제시된 내역을 활용하여, 부패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생활소비재 업종의 부패인식도와 각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현재 상태의 절반 정도까지 개선될 때 나타날 고용인원 변화에 대한 산정 결과가 <표 4-20>, <표 4-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0> 부패수준 개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전체 고용인원)

업종	2015년 고용 인원 (명)	현재 부패 인식도	개선이 가정된 부패 인식도	가정된 부패 인식 개선율 (%)	고용 인원 증가율 (%)	부패 수준 개선 시 예측 고용 인원
건설	267	2.05	2.59	26.3	27.6	341
금속광업	44,023	2.83	2.98	5.3	5.6	46,488
전기전자/통신장비	22,366	2.90	3.02	4.1	4.3	23,328
생활소비재	17,683	3.13	3.13	0.0	0.0	17,683
통신/미디어	6,312	2.60	2.87	10.4	10.9	7,000
소프트웨어/인터넷	26,002	3.12	3.13	0.3	0.3	26,080
유통	3,129	2.54	2.84	11.8	12.4	3,517
금융	67,523	2.71	2.92	7.7	8.1	72,992
음식료/담배	31,197	3.10	3.12	0.6	0.6	31,384
자동차	10,691	2.77	2.95	6.5	6.8	11,418
제약/바이오	6,498	2.42	2.78	14.9	15.6	7,512
조선/중공업/기계	36,043	2.73	2.93	7.3	7.7	38,818
화학	16,004	3.02	3.08	2.0	2.1	16,340
호텔/레스토랑/레저	8,077	2.85	2.99	4.9	5.1	8,489
총 합계	295,815	-	-	-	-	311,390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21〉 부패수준 개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정규직 고용인원)

업종	2015년 고용 인원(명)	현재 부패 인식도	개선이 가정된 부패 인식도	가정된 부패 인식 개선율 (%)	고용 인원 증가율 (%)	부패 수준 개선 시 예측 고용 인원
건설	267	2.05	2.59	26.3	30.2	348
금속광업	42,307	2.83	2.98	5.3	6.1	44,888
전기전자/통신장비	20,928	2.90	3.02	4.1	4.7	21,912
생활소비재	16,878	3.13	3.13	0.0	0.0	16,878
통신/미디어	5,949	2.60	2.87	10.4	12.0	6,663
소프트웨어/인터넷	18,648	3.12	3.13	0.3	0.3	18,704
유통	2,732	2.54	2.84	11.8	13.6	3,104
금융	49,903	2.71	2.92	7.7	8.1	53,945
음식료/담배	28,533	3.10	3.12	0.6	0.7	28,733
자동차	10,312	2.77	2.95	6.5	7.5	11,085
제약/바이오	6,365	2.42	2.78	14.9	17.1	7,453
조선/중공업/기계	32,978	2.73	2.93	7.3	8.4	35,748
화학	15,412	3.02	3.08	2.0	2.3	15,766
호텔/레스토랑/레저	6,354	2.85	2.99	4.9	5.6	6,710
총 합계	257,566	-	-	-	-	271,937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표 4-20〉은 각 업종의 부패수준이 현재 부패인식도가 가장 낮은 업종과의 격차를 절반으로 줄일 때 나타날 전체 고용인원에 대한 영향을, 〈표 4-21〉은 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 내 291개 기업의 2015년도 전체 고용인원은 295,815명이었는데, 위에 제시된 형태의 업종별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이 311,3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기업에 대해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이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291개 기업의 2015년도 전체 정규직 고용인원은 257,566명이었는데,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271,9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들 기업의 정규직 고

용인원이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패수준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양 증대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표되는 고용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291개 기업의 전체 및 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된 2015년 정규직 비율은 87.1%이다. 만약 위에 제시된 형태의 업종별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인원이 위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증가한다면, 이들 분석 대상 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87.3%로 0.2%p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그 효과를 특별히 과대평가하는 방식의 가정을 취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에 일정 수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우리는 현재 부패인식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업종의 부패수준에 향후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미 상대적으로 부패수준이 낮은 업종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없을 것으로 상정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완화되어 현재 부패수준이 낮은 업종에서도 더 큰 정도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상정하면, 당연히 현재 제시된 예측 결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부패인식도가 높은 업종에서 가장 낮은 업종과의 격차를 절반만큼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 제시된 결과는 반부패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업종별 부패수준 격차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데 초점을 두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 수행된, 업종별 부패 수준이 해당 업종 내 기업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본 장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적 가설은 이러하다.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동일 업종 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가 늘면서 그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릴 경우 개별 기업 수준에서 시장점유율 등의 성과가 개선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즉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서는 일종의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별 기업 수준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가 저해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적 가설을 요약하면,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불법적 지대추구에 드는 비용이 커지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고용인원의 감소는 물론 현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업에 대해 시간 불변의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물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까지 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생성 편의가 상당 부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장의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를 앞 장에서 소개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와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에 포함된 두 가지 자료, 즉 3~6차년도 균형 패널 추가 자료 중 분사 데이터와 NICE 재무정보 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핵심 종속변수는 고용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각 기업의 연도별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인원을, 인적자원 투자 관련 변수로는 연도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총액을 사용하였다. 핵심 설명변수는

각 기업이 소속된 업종의 부패인식도로서,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각 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산총계 등을 활용하였고, 일부 모형에서는 각 기업이 속한 업종의 자본집약도를 통제하기 위해 중화학공업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전체 고용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형 분석 결과,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1% 개선되면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수준이 낮은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고용의 양을 늘릴 여력이 유의미하게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여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기본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1% 개선될 때 해당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패수준 1% 개선이 전체 고용인원 1.05%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정규직 고용인원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업종 단위 부패수준 개선이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의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인원 중 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형태의 고용의 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 업종별 부패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와 관련된 핵심 설명변수를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여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더라도 질적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의 2013년 및 2015년 2개 연도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아지나 핵심 추정계수 값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업종 단위 부패수준이 변화할 때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수행하는 현 종사자 대상 인적자원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연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이 낮아질수록 해당 업종 내 기업의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이 줄어드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고용인원 및 재무현황 관련 통제변수를 통제할 때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매우 강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개선될수록 해당 기업이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이다. 기본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부패인식도 1% 개선에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이 2.81%, 복리후생비 총액은 1.8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 기업 관점에서 새로운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기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여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첫 번째 대안에 집중하면서 두 번째 대안에 대한 투자는 더 적게 하는 경향을 보임을 뜻한다.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은 해당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위험과 직결된다. 외부 위험요인이 적은 상황에서 기업은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보다는 신규 인력 충원과 같은 좀 더 과감한 형태의 투자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기업의 투자 여력이 동일한 상황에서 경영상 위험도가 달라지면 두 가지 유형의 투자 사이에 대체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만약 위험도 변화에 따른 대체에 의해 두 번째 유형의 투자 감소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처한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질 때 첫 번째 유형의 투자는 늘고 두 번째 유형은 줄어드는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론적 경로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은 제시된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및 민간부문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해 업종별 부패수준이 개선되어 현재 인식된 부패 정도가 가장 낮은 업종 수준에 좀 더 근접하게 될 경우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타나게 될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때 예측을 위해 채택한 가정은 각 업종별 부패인식도와 부패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의 부패인식도 간 차이가 민간부문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 파급효과 예측을 위해 근거로 삼은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는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1% 개선될 때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이 1.05%, 정규직 고용인원은 1.15%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대상이 된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 내 291개 기업의 2015년도 전체 고용인원은 295,815명인데, 위에 제시된 형태의 업종별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이 311,3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이들 기업에 대해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이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291개 기업의 2015년도 전체 정규직 고용인원은 257,566명인데,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271,9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패수준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양 증대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표되는 고용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석 대상 291개 기업의 전체 및 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된 2015년 정규직 비율은 87.1%이다. 만약 위에 제시된 형태의 업종별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인원이 위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증가한다면, 이들 분석 대상 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87.3%로 0.2%p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의 효과를 특별히 과대평가하는 가정을 취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양과 질에 일정 수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파급효과 예측을 위해 택한 가정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시된 결과는 반부패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업종별 부패수준 격차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데 초점을 두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부패의 범위로서 기업 내부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보다는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정관계 권력층과 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특정 경제 내에 만연한 부패는 해당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장기 경제성장 및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부패에 의한 자원배분 효율성 상실은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 않음을 선행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와 한국 등 선진국 혹은 선진국에 근접한 국가에서조차 정치적 연줄에 따른 기업 간 자원배분 왜곡이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 감소, 정부 발주 공사의 지연 증가 및 비용 상승 등의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부패가 만연할 때 부패한 정치인 혹은 관료와의 연결 고리를 가진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주가 상승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구제금융 수혜 가능성 상승, 국내자금 조달

수월성 제고, 공공구매 계약 증가, 이익률 및 매출액 상승 등의 측면에서 해당 기업의 성과가 부패 연결고리 활용을 통해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정치적 연줄에 따른 공공자원 배분 현상이 미국처럼 부패와 지대추구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국가, 덴마크처럼 실제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에서조차 만연해 있고, 정치적 연줄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향상되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인 및 관료와의 부패관계를 형성한 개별 기업은 대체적으로 상당한 사적 이익을 향유하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패의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즉 부패는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의 괴리를 야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량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를 전화설문 방식으로 공무원 및 시민단체,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련 학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때 부패의 범위로서 기업 내부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보다는 정관계 권력층과 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은 건설, 제약/바이오, 유통, 운송, 통신/미디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패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은 생활소비재, 소프트웨어/인터넷, 음식료/담배, 화학 등이었다.

이러한 전체 응답자 대상 설문 결과는, 응답자의 활동 영역, 연령대 및 성별 등으로 나누어 세부 집단별로 분석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장에서 수행되는 본 연구의 주된 정량분석에서는 유효표본 전체의 응답 내역을 활용하였다. 더불어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적 및 긍정적 응답의 비율을 활용하여 각 업종을 평가한 결과 역시 5점 척도 평균을 활용하여 산정한 업종별 부패인식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수행될 주된 정량분석에서 응답자 전체의

업종별 5점 척도 평균 부패인식도를 활용하되, 업종별 부정 및 긍정 응답 비율을 4장의 보조분석에서 활용함으로써 일종의 강건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업종별 부패수준이 해당 업종 내 기업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동일 업종 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법적 지대추구행위가 늘면서 그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릴 경우 개별 기업 수준에서 시장점유율 등의 성과가 개선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즉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서는 일종의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별 기업 수준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가 저해된다.

즉 4장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적 가설을 요약하면, 부패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불법적 지대추구에 드는 비용이 커지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더불어 현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업에 대해 시간 불변의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물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까지 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생성 편이가 상당 부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장의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를 3장에서 소개한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와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에 포함된 두 가지 자료, 즉 3~6차년도 균형 패널 추가 자료 중 본사 데이터와 NICE 재무정보 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핵심 종속변수는 고용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각 기업의 연도별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인원을, 인적자원 투자 관련 변수로는 연도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총액을 사용하였다. 핵심 설명변수는 각 기업의 소속 업종 부패인식도로써, 본 연구를 위해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각 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산총계 등을 활용하였고, 일부 모형에서는 각 기업이 속한 업종의 자본집약도를 통제하기 위해 중화학공업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패인식도가 낮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전체 고용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형 분석 결과,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1% 개선되면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수준이 낮은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고용의 양을 늘릴 여력이 유의미하게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여 업종별 부패수준이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기본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 수준이 1% 개선될 때 해당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패수준 1% 개선이 전체 고용인원 1.05%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정규직 고용인원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업종 단위 부패수준 개선이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의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인원 중 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형태의 고용의 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 업종별 부패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와 관련된 핵심 설명변수를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여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더라도 질적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3년 및 2015년 2개 연도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아지나 핵심 추정계수 값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 단위 부패수준이 변화할 때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수행

하는 현 종사자 대상 인적자원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연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 업종의 부패수준이 낮아질수록 해당 업종 내 기업의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이 줄어드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고용인원 및 재무현황 관련 통제변수를 통제할 때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매우 강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이 개선될수록 해당 기업이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이다. 기본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부패인식도 1% 개선이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은 2.81%, 복리후생비 총액은 1.8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 기업 관점에서 새로운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기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여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첫 번째 대안에 집중하면서 두 번째 대안에 대한 투자는 더 적게 하는 경향을 보임을 뜻한다.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수준은 해당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위험과 직결된다. 개별 기업이 처한 위험요인이 적은 상황에서 기업은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보다는 신규 인력 충원과 같은 좀 더 과감한 형태의 투자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업의 투자 여력이 동일한 상황에서 경영상 위험도가 달라지면 인력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투자 사이에 대체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 기업의 인력에 대한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만약 위험도 변화에 따른 대체에 의한 두 번째 유형의 투자 감소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업종 내 부패수준이 낮아질 때 첫 번째 유형의 투자가 늘고 두 번째 유형은 줄어드는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도출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론적 경로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제시된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및 민간부문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해 업종별 부패수준이 개선되어 현재 인식된 부패 정도가 가장 낮은 업종수준에 좀 더 근접하게 될 경우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타나게 될 파급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예측을 위해 채택한 가정은 각 업종별 부패인식도와 부패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의 부패인식도 간 차이가 민간부문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 파급효과 예측을 위해 근거로 삼은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는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의 부패인식도가 1% 개선될 때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이 1.05%, 정규직 고용인원은 1.15%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대상이 된 291개 기업의 2015년도 전체 고용인원은 295,815명인데, 위에 제시된 형태의 업종별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이 311,3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이들 기업에 대한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이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291개 기업의 2015년도 전체 정규직 고용인원은 257,566명인데,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271,9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정규직 고용인원이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패수준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양 증대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표되는 고용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석 대상 291개 기업의 전체 및 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된 2015년 정규직 비율은 87.1%이다. 만약 위에 제시된 형태의 업종별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 및 정규직 인원이 위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증가한다면, 이들 분석 대상 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87.3%로 0.2%p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의 효과를 특별히 과대평가하는 방식의 가정을 취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에 일정 수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파급효과 예측을 위해 택한 가정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도출된 결과는 반부패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업종별 부패수준 격차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데 초점을

두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노동 시장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내에 만연한 부패는 해당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장기 경제성장 및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패가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보더라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부패한 정치인 혹은 관료와의 연결고리를 가진 특정 기업의 성과는 주가 상승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구제금융 수혜 가능성 상승, 국내자금 조달 수월성 제고, 공공구매 계약 증가, 이익률 및 매출액 상승 등의 측면에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듯,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그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릴 경우 개별 기업 수준에서 시장점유율 등이 개선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할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해당 경제의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둘째, 이처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민간의 자발적 개선 노력과 어우러질 때 노동시장을 포함한 경제 내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현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복리후생 등 인적자원 투자는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감소시킬 가능성이 본 연구 결과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문헌연구 및 정량분석 결과 부패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전반적으로 폭넓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적자원 투자와 관련된 일부 부정적 가능성이 정부의 반부패 정

책 시행 및 민간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외부로부터의 경영상 위험이 여러 측면에서 커지다 보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 충원과 같은 과감한 투자보다 기존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와 같은 보수적인 투자에 주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반부패 정책 시행 등을 통해 부패수준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날 것이나, 경영상 위험 감소에 따른 대체로 인해 나타나는 인적자원 투자 감소를 상쇄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기존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상시 불필요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기간 하나,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활동 영역, 연령대 및 성별 등 세부 집단별로 드러나는 업종별 부패인식도에 있어 서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은 그렇지 않은 업종에 비해 실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패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싸잡아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본 연구의 근본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다. 부패인식도가 높은 업종의 기업들이 타 업종에 비해 권력층으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유무형의 압력에 더 많이 시달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노력 없이 그때 그때 드러나는 구체적인 부패 사례를 지적하며 연루된 이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부패 사례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절 맺음말

본 연구는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패가 노동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 결과, 부패가 기업수준에서 고용의 양과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팩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부패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이론적 예측과 상반되게 도출되기도 하였다.

부패의 경제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 그리고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민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패수준이 낮아질 때 노동시장 내 고용의 양과 질이 일정 수준 개선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 있는 부패 감소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 장기 경제성장 촉진 및 경제적 불평등 축소 등과 함께 부패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책이 그러하듯 반부패 정책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야기할 가능성이 본 연구의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부패수준 개선이 기업의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등 인적자원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킬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론적 예측과 상반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위험이 높을 때 투자의 두 가지 유형 간에 발생하는 대체에 주목한 바 있다. 즉 기업이 평소에 직면한 경영상 위험이 높은 경우, 부패수준이 개선될 때 투자에 대한 여력이 늘더라도 위험 하락에 따른 투자 유형 간 대체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인적자원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반부패 정책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일부 반감시키게 된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부패 혹은 기타 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관계 권력층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악영향이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현재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노동시장에서 국민들이 그 결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부패 사례 적발 및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부패 유발 요인 근절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민간의 자발적 개선 노력과 어우러져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 불필요한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는 정책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역시 부단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부패인식도 조사」 설문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2), 『부패와 경제성장』, 경제주평 12-18.
- Akcigit, Ufuk, Salome Baslandze and Francesca Lotti(2017),
 “Connecting to Power: Political Connections, Innovation, and
 Firm Dynamics”, working paper.
- Akey, Pat(2015), “Valuing Changes in Political Networks: Evidence
 from Campaign Contributions to Close Congressional
 Election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8(11), pp.3188-3223.
- Amore, Mario Daniele and Morten Bennesen(2013), “The Value of
 Local Political Connections in a Low-corruption Environ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0, pp.387-402.
- Cingano, Federico and Paolo Pinotti(2013), “Politicians at Work: The
 Private Returns and Social Costs of Political Connection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1(2), pp.433-
 465.
- Faccio, Mara(2006), “Politically Connected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96(1), pp.369-386.
- Faccio, Mara, Ronald W. Masulis and John J. McConnell(2006),
 “Political Connections and Corporate Bailouts”, *Journal of
 Finance* 61(6), pp.2597-2635.
- Fan, Joseph P. H., T. J. Wong and Tianyu Zhang(2007), “Politically
 Connected CEOs, Corporate Governance, and Post-IPO
 Performance of China’s Newly Partially Privatized Firm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4, pp.330-357.
- Ferguson, Thomas and Hans-Joachim Voth(2008), "Betting on Hitler-The Value of Political Connections in Nazi German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101-137.
- Fisman, Raymond(2001), "Estimating the Value of Political Conn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1(4), pp.1095-1102.
- Goldman, Eitan, Jorg Rocholl and Jongil So(2013), "Politically Connected Boards of Directors and The Allocation of Procurement Contracts", *Review of Finance* 17, pp.1617-1648.
- Johnson, Simon and Todd Mitton(2003), "Cronyism and Capital Controls: Evidence from Malaysia",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7, pp.351-382.
- Khwaja, Asim Ijaz and Atif Mian(2005), "Do Lenders Favor Politically Connected Firms? Rent Provision in an Emerging Financial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1371-1411.
- Krueger, Anne O.(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64(3), pp.291-303.
- Leuz, Christian and Felix Oberholzer-Gee(2006), "Political Relationships, Global Financing, and Corporate Transparency: Evidence from Indonesia",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 pp.411-439.
- Mauro, Paolo(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pp.681-712.
- _____(1998), "Corruption and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9, pp.263-279.
- OECD(2015), *Consequences of Corruption at the Sector Level and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ECD Publishing, Paris.

Schoenherr, David(2018), “Political Connections and Allocative Distortions”, *Journal of Finance*, forthcoming.

Tahoun, Ahmed(2014), “The Role of Stock Ownership by US members of Congress on the Market for Political Favo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1, pp.86-1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

_____,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7: Full Source Description*.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7

문2. 다음으로 “**금융광업**” 업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부패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③ 전체 평균과 부패 정도가 비슷하다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

문3. 다음으로 “**전기전자/통신장비**” 업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부패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③ 전체 평균과 부패 정도가 비슷하다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

문4. 다음으로 “**생활소비재**” 업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부패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③ 전체 평균과 부패 정도가 비슷하다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

문5. 다음으로 “**통신/미디어**” 업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부패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③ 전체 평균과 부패 정도가 비슷하다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

문6.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인터넷**” 업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부패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③ 전체 평균과 부패 정도가 비슷하다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

문7. 다음으로 “**운송**” 업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부패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③ 전체 평균과 부패 정도가 비슷하다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

문8. 다음으로 “**유통**” 업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부패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③ 전체 평균과 부패 정도가 비슷하다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

문9. 다음으로 “**유틸리티**” 업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부패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 ②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③ 전체 평균과 부패 정도가 비슷하다 ④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⑤ 전체 평균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낮다

◆ 執筆者

- 김세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발행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 발행인 | 배규식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8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264-1